



칠갑산휴양림 청정지역의 쾌적한 산림욕장

글 현경숙 · 사진 전수영 기자



칠갑산자연휴양림은 칠갑산도립공원 서쪽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 청정지역에 있다. 75만㎡의 넓고 쾌적한 산림욕장이다. 통나무집, 원두막, 야영장 등의 휴양시설과 강의실, 야외공연장, 체력 단련 시설, 물놀이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휴양림에는 두 줄기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과 숲 사이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다. 여름 휴가지로서 이만한 곳도 드물 것 같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휴양림들이 개방과 잠정 폐쇄를 거듭하고 있어 휴가철 이용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들에게 신나는 여름을 만들어주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할 것 같다.

산림문화휴양관에는 4~10인용 방, 150인용 회의실, 매점, 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은 4~15인용 16채가 울창한 숲길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지어져 있다. 야영장에는 3.6m×2.7m의 야영 데크 20개가 설치돼 있다. 물놀이장은 맑고 깨끗한 칠갑산 계곡물을 이용한다. 2인용 원두막이 4동 있다. 야영 데크와 원두막은 유료다.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잔디공원이 있어 가족 단위 모임이나 단체 행사를 하기 알맞다. 주변에는 칠갑산도립공원뿐 아니라 장곡사, 냉천계곡, 천장호수, 구곡지천, 모덕사 등의 관광지와 명승지가 있다. 휴양림 가까운 곳에 칠갑호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에 물이 차면 물과 산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다. ●

